

새 출발! 학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예비학부모교실 교안 연구팀

1. 우리는 부모인가 학부모인가?

1) 부모와 학부모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모’가 된다. 그 아이가 자라 교육기관에 다니게 되면서 붙는 또 하나의 이름이 ‘학부모’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에 비하면 좋은 학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편이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에는 부모 역할을 배우는 것도 포함된다. 가령 부모는 아이와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고, 아이 마음을 읽어주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 아이가 꿈을 꾸게 도와주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아이로 커 나가길 바란다. 그러나 학부모 역할을 가르쳐주는 기관은 없다. 학부모 역시 교육의 한 주체임에도 그 역할에 대한 배움은 학생의 교육을 우선시하는 초·중등교육기관에서도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으며, 결국 개인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의 교육권과 현실

학부모의 교육권은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다. 학교운영 참여권(교육기본법 제5조),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권(교육기본법 제13조 2항)이 그것이다.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그 활성화는 학교교육의 민주화를 향해 가는 우리나라의 현행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역사는 소위 치맛바람이라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후원하는 부정적인 역할에서 출발하였기에 학부모는 학교운영 참여권과 자녀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권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 그간 학교 참여를 주도한 일부 재력 있는 학부모들은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 교육력 제고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자신들의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이기주의를 관철시키려는 활동을 주도하여, 뜻있는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고 결국 많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를 외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그릇된 배경으로 많은 학부모들은 스스로를 학교교육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 방관자로 남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제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에 대해 불만스러운 면 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많아도 학교는 학교장과 교사들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즉 애초부터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의사가 학교교육에 반영되고 수렴되는 경험을 가져보지 못했고, 학교에 의견 개진했을 때 학교장이나 교사로부터 건방진 학부모로 낙인찍히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이고 비주체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로서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학교장과 교사 개개인의 선의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의견수렴구조를 갖추어 학부모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2) 옆집 아줌마를 조심하자

막연하게나마 좋은 학부모가 되기 위해 고민하던 학부모도 내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여 주변의 다른 아이들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평가를 거친 후 성적표를 받게 되면 그런 고민을 순식간에 유보시키고 만다. 당장 성적경쟁에서 밀려난 현실 앞에서 학부모는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아이의 꿈보다 성적 향상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학교에 다니며 고민하고 걱정하는 아이보다 한발 앞서 고민하는 부모가 되어버리고, 차츰 아이의 미래도 부모가 설계해나가게 된다.

좋은 학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는 곳이 없다보니, 결국 학교에 대한 정보는 옆집 아줌마에게 의지하게 된다. 하지만 옆집 아줌마 통신에 의한 학교 정보는 매우 주관적이며, 따라서 왜곡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어차피 옆집 아줌마가 학교와 교사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으로 경험한 후에 나온 정보일 뿐이며, 따라서 이미 편견으로 가득 찬 감정이 밑바탕이 되어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3) 바로 서는 학부모

아이들은 부모라는 창을 통해 사회를 배워나간다. 부모의 가치관, 행동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이는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해 사회집단을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학교생활을 통해 여럿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의식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학부모가 학교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학부모는 학교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많은 학부모들은 아이들 시험이 끝나면 햄버거와 음료수를 사주고 체육대회가 있으면 피자과 음료수를 사주는 것이 학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 잘못 알고 있다.

학교가 변해야하고 교육이 달라져야한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교육제도가 바뀌고 교육정책이 변화하는 것으로도 학교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수 십 년간 교육정책의 변화가 결국 학교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목격해 왔다. 물론 선생님들도 변해야 하지만,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의 주체, 즉 학부모들이 변해야 하는 것이다. 학부모가 바로 서야 아이들이 우뚝 설 수 있다.

2. 학부모와 학교 참여

1) 학부모의 학교 참여란 무엇인가?

학부모참여란 학교 운영과 교육 제도에 학부모들이 주체적으로 관여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말한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학부모 참여운동을 통해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내는 빛나는 성공 사례들이 누적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에의 유기적인 참여는 학교와 자녀교육에 대해 새로이 학부모들의 이해를 넓힘으로써 학교를 적극 지원하게 만들며,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문제행동을 개선해주는 데에서 나아가 학교를 함께 경영해 나가는 『학교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학부모 참여운동을 하는 학부모는 교육의 당당한 한 주체로서 내 아이만의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로 학교와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 즉 학교에 참여하면 내 아이에게 어떤 이익이 오겠지 하는 이기적인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선배 학부모들이 해왔던 대로 또는 관행적으로 학교활동에 참여했다가 많은 상처를 입고 도리어 학교를 멀리하게 되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어떤 학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학부모의 책임이며 권리라고 판단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학교교육에 대한 누적된 불신과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겠지만, 참여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방관적인 태도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더 이상 교육 소비자가 아닌 교육주권자로서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교육을 새롭게 만들어야겠다는 책임의식이 학부모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난 20여 년 동안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서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왔으며, 다음에 소개하는 것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를 많이 생산해 내었다.

2)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방법

① 학부모총회

학부모들이 새 학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워니워니’해도 내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어떤 분일까 하는 점이다. 3월 중하순이면 학교마다 학부모총회를 여는데 이 날은 아이의 새 담임선생님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참여하는 것이 좋다.

원래 학부모총회는 학부모들의 대표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는 날이며 아울러 학부모회와 같은 학부모 단체를 조직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나아가 학부모총회를 통해 학교는 연간 학교운영계획을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고 아이 교육을 위해 협조를 구하기도 한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 또는 학교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담임선생님이나 이날 선출된 학부모 대표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로서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기구로,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해당 학교의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명칭 그대로 학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 7~15인의 범위 안에서 위원의 수가 정해지며,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이 절차적 기구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은 존중받을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 활동을 하게 되면 학교 예산의 규모나 학교 시설, 국가의 교육 정책,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사정, 아이들의 학교생활 등에 대한 관심 등에 대한 이해가 위원이 아닌 학부모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게 되된다. 따라서 학교를 둘러싼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에 열의가 있는 학부모라면 운영위원회 활동이 적극 권장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와 각 심의 사항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학교측의 열린 수용의지가 필요하다.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학부모 위원은 내 아이만이 아니라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회 또는 어머니회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학교에는 자생 학부모 단체로 학부모회, 그리고 이와 비슷한 어머니회, 자모회, 아버지회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학부모회는 모든 학교에 당연히 존재해야 하고 또 실제로 그러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학부모회 구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진 않다. 학교운영위원회 이외의 조직은 모두 임의단체이므로 활동 목적과 내용을 학부모 조직원들 스스로 채워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모회의 회장이나 기타 임원이 되면 마치 대단한 감투를 쓴 것처럼 위세를 부리는 학부모들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한다. 매년 3월 4월이면 불법 찬조금을 거두거나, 선생님과의 식사, 스승의 날 행사, 현장학습이나 수련회 때 교사를 위한 점심 마련 등 불필요한 일을 계획하여 사회 문제가 되는 학교도 많은데 대개 그 중심에는 소위 ‘치맛바람’이라 불리는 구시대적 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릇된 의식을 가진 학부모회가 있기 쉽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라는 교육현장이 훨씬 건강해질 수 있느냐의 여부는 상당 부분 학부모의 손에 달렸음을 늘 가슴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

④ 학교급식 검수단(모니터링단)

전국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급식조례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래 각 학교에서는 학교급식법에 의해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부모 검수단(모니터링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검수하게 함으로써 학교급식 운영에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나아가 학교급식 소위원회와 학부모급식 검수단은 매년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하는데, 이렇게 학부모들이 급식 검수를 꼼꼼하고 철저하게 함으로써 우

리아이들의 밥상이 좀 더 건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⑤ 학교 도서관 활동

학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면 학교 도서관에서 학부모 도서위원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학부모가 도서관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도서관 자원봉사 제도가 없는 학교라면 학교운영위원회나 교무실에 학부모 도서위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면 된다. 학부모는 도서실에서 대출, 반납 등의 업무 외에도 도서실 책 선정, 소식지 발간, 인형극 공연, 독서 골든벨 개최, 책읽어주기, 독서교실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⑥ 교통봉사(녹색어머니회)

아이들 등교 시간에 횡단보도에서 교통봉사를 하는 학부모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중요한 시간을 내어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도와주는 교통봉사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녹색어머니회이다. 봉사의 의지가 있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⑦ 명예교사 활동

명예교사제란 학부모가 교사로 직접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능력이 있는 학부모가 명예교사가 되어 책 읽고 토론하기, 숲 공부, 한자 가르치기, 미술 창작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다. 모든 학교에서 운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가진 능력이나 재능이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⑧ 상담자원봉사

우리나라 학교에 부족한 부분 중 하나가 상담영역이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학부모는 상담교육을 미리 받아야 하고 학교 쪽에서도 학부모 상담 자원봉사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육청에서 상담교육을 진행하여 학교로 배치하는 형태로도 운영되고 있다.

⑨ 교복공동구매 활동

중학생이 되면 아이들은 교복을 입게 되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다. 교복은 학교에 다니면 꼭 사야 하는 소비재이지만 학교에서 단체로 구매할 수 없으므로 값싸고 질 좋은 교복을 공동으로 구매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모여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좋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에 공동구매를 제안하고 교복을 새로 구입해야 하는 학년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구매 추진위’를 구성한다. 추진위에서 공동구매 희망조사, 방법, 시장조사, 가격

등을 의논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교육단체의 도움이나 교육부에서 배포한 매뉴얼을 참고하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⑩ 각종 학교 행사에 학부모 참여

학교에는 매년 도서바자회, 운동회, 체험학습, 급식의 날, 학예회 등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데,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 학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3) 담임교사와의 만남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학부모들은 어떤 담임교사일지 매우 궁금해진다. 그만큼 학교생활에서 담임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교육하는 데에는 교사만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 역할 또한 매우 크다. 담임교사를 만나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눈도장을 찍는 통과의례로서가 아니라 아이의 건강문제, 가정생활, 고민 등 아이의 학교생활을 함께 이야기하여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매우 예민한 사항은 미리 알려야 교사의 단순 실수로 인한 아이의 상처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6학년 졸업반 담임은 아이들에게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성함이 같이 있는 주소록을 그대로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는데 그 중 한 학생의 성이 아버지와 달라 아이가 상처받은 경우가 있었다. 교사는 의도적으로 한 일은 아니었으나 그 일로 아이는 상처를 받은 것이다.

3. 구체적인 학부모회 구성과 운영

1) 학부모회

학교에 금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모 조직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권을 회복하고 그 대표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는 학부모회가 필요하다.

학부모회 조직은 학급 단위, 학년 단위, 학교 단위로 구성될 수 있다. 학급 학부모회의 대표가 학년 학부모회로, 또 학년 학부모회의 대표가 전교 학부모회로 구성된다. 기존의 어머니회, 육성회, 청소년 단체 후원회 등 학부모 단체 간의 갈등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 단체를 학부모회의 산하 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부모회에서는 학부모교육 강좌, 학생상담 활동 등을 통해 학교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진로 지도, 학부모회지 발간 등과 같은 학부모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학교와 학부모는 모두,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학교와 학부모가 학부모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하겠다는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학부모가 학교 공간에서 취미

활동을 하는 수준이라면 학교참여 활동을 통해 느끼는 보람도 작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2) 학급학부모회

교육 참여를 하려는 학부모들에게는 학교 단위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교 안 자원봉사 활동에 앞서 무엇보다도 학급 단위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학급 단위의 학부모 ‘교육참여’란 학급 임원을 맡은 자녀의 부모들 몇몇이 모여 고작 담임 교사 접대, 교실환경미화 작업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학급 학부모회를 한다면 교사와 학부모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물론, 교사의 교육방식이나 학교 교육방침에 대한 건의, 교실 안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의견 개진 등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될 것이다.

실제로 학급 학부모회 참여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은 이런 만남의 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다. 교사가 처음 장을 마련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면 이후 학부모들이 모임을 조직하고 정례화하여 일상적인 소통을 통하여 학급의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께 이런 만남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학부모회 운영

대개 학부모들은 학교에 가서 해야 할 활동이 구체적이어야 참여하게 된다. 아무 일 없이 동네 마실 가는 마음으로 학교에 찾아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교실청소를 해주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도 학교 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리 없다. 이제껏 학부모회가 어떻게 운영되면 좋은지에 대한 모델도 없었고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학부모회 운영이 잘 될 것이라는 욕심만 버린다면 충분히 좋은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는 참교육학부모회나 교사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다.

① 학부모의 요구 조사 실시

다른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학교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요구 수준을 조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② 교육 강좌 마련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많다.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혹은 교육철학에 관한 강좌를 마련하여 학부모 교육을 해보는 것이 좋다. 대중강좌가 반응이 좋다면 세부적인 주제로 동아리 모임에서 학습모임을 만들 수 있다.

③ 다양한 학교참여 활동 조직

학교급식재료 검수단을 조직하여 식재료 검수활동을 하거나 아이들과 교내 봉사단을 조직하여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된다.

④ 학부모 동아리 조직

많은 학부모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정기적인 회의 자리나 대중 강좌 형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가 좀 더 살아있는 조직체로 기능하려면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자주 모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읽고 싶은 책을 모여 읽고, 과자를 함께 만들거나, 함께 바느질을 배우거나, 컴퓨터를 함께 배우는 것과 같이 배우고 싶은 것을 함께 모여 배우는 작은 동아리 활동은 학부모회를 살아있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⑤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 수렴

어떤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모여 교과운영에 관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아 수업에 반영하는 ‘교과포럼’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그 자체도 바람직하거니와, 실제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점은 학교와 학부모가 서로 만나 학교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자식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는 학부모들이 야속하기만 하고, 아이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가 좀 더 친절하고 상냥하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기를 바라기만 한다. 서로가 서로를 겁내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회는 학교와 학부모가 상생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수렴된 의견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4.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참여 활동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부모들이 배식당번을 하고 청소를 하는 것을 학교참여 활동이라고 이해하는 학부모는 별로 없다. 이런 활동을 위해 학교에 가는 학부모들에게는 학교는 여전히 학부모가 넘기에는 높은 담이고 신뢰감이 부족한 곳이다. 그렇다고 학부모가 학교 밖에서 학교가 빠르게 변하는 사회 흐름에 따라오지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학교 환경이 열악하다고 험담한다고 학교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학교건물이 최신식으로 바뀌고 많은 학습 자료가 예전보다 더 잘 구비되었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학교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맡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이 맡은 역할은 비교적 뚜렷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학부모들이 맡은 역할은 불분명하고 뒤에 가려져있는 것에 불과했다.

아이의 보호자인 학부모가 학교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해봐야 한다. 학부모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있다면 학교로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진 않을 것이다. 교육의 한 주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은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실천하는 일이다. 이것은 분명 치맛바람과는 다르다.

학교참여 활동으로 교육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를 잘 모른다. 학교가 나서서 학부모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드물며 학부모가 스스로 학교를 알아보겠다고 나서는 일은 더욱 드물다. 아이들의 생활공간인 학교를 학부모들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학교교육이 바로 서기 힘들다. 학교에 가기 두려워하는 학부모들이 학교 활동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참여해본다면 학교에 대한 이해는 높아질 것이다. 더불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한 학교교육과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다.

학부모 학교참여에 대한 성과연구에 의하면, 학생의 학업성적이 현저하게 향상되었고, 문제행동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구체적인 학습과제가 무엇인지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계획적으로 자녀의 학습을 돕고 부모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에 나와 봉사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문제, 수업에서의 교사의 애로, 학생의 성취 과정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이를 깊이 이해하게 됨으로써 학교, 학급, 교사, 자기자녀를 적극 돕는 긍정적, 지원적 태도로 변화하게 되며 학교에 대한 만족감이 증대된다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 지역사회 모두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학교로서는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활동영역을 만들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부모들이 가진 교육열과 재능을 학교 도서관에서, 상담실에서, 아이들과의 봉사활동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에서 담아내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공동체 정신은 말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것으로 교육되는 것도 아니다. 공동체 정신의 회복은 시민의식이 성숙해져야한다는 말과도 통하는 것으로, 각자가 처해진 위치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교감하며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안에서 다양한 학교참여 활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학교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활동이다.

□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경우

▷ 다친 아이는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치료받게 하는 게 우선이다. 학교 내에서 혹은 등하굣길에 사고로 다쳤다면 학교 안전공제회를 통하여 치료비가 보상된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어린 학생이어서 어떤 경우든 자기 책임을 묻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 설령 상대방의 실수로 다쳤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보상은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만일 학교가 신청해 주지 않는다면 직접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 받아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로 학부모간 또는 교사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해결하기 어렵다면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다.

▶ 선생님께 아이에 관하여 드릴 말씀이 있을 경우

▷ 알림장이나 선생님의 개인 휴대폰 메시지를 이용한다. 어떤 문제인지 간단히 알리고 약속시간을 미리 정하여 약속된 시간에 상담을 하면 좋다. 혹시 급한 일이라면 당연히 얼른 학교에 연락하고 뛰어 가야 한다.

▶ 아이가 친구와 싸웠을 때

▷ 일단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준다. 아이를 다그치거나 혼내주면 위축되어 말을 못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아 부모님과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니 우선 경청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모님이 판단하여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이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의 이야기를 모두 사실이라고 믿어 흥분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 나이 또래는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한다고 야단치지 말고 아이가 억울한 심정이라 그러는 것이라고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좋다. 내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 담임선생님이 내 아이만 괴롭히는 것 같을 때

▷ 아이 이야기만 듣고 흥분해서는 안 되며 사실관계를 직접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다른 교사에게 이야기하거나 아이 앞에서 교사를 비난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을 만나 사실대로 이야기함으로써 아이교육을 위하여 협조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이것이 어렵다면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이나 교사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아이 문제로 교사와 의사를 달리할 때

▷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이나 아이의 교육문제와 관련한 내용에서 교사와 의견이 다르다면 담임선생님을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부모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고 요구하기 전에 학교와 교사의 입장을 들어 무리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조율하며, 가능하다면 교사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현명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교사의 교육방법을 비난하는 것은 아이의 교육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 다른 학부모들과 갈등이 있을 때

▷ 학급 학부모회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정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학급의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므로 이것을 통해 다른 학부모들과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여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다른 학부모들이 비교육적이라고 판단되어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이라면 교육적인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큰 욕심을 내지 말고, 가까운 이웃학부모와 자주 시간을 가지면서 교육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참교육학부모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 반장 엄마가 임원 회비를 내라고 하는데요, 불법 찬조금이라고 말했더니, 학급 비품 사려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 반 임원 회비, 반 대표 회비, 학년 대표 회비, 총 학부모회 임원 회비는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불법찬조금이다.

불법찬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의해 기금의 목적, 기금의 규모와 방법, 시한 등이 심의·의결되지 않은 임의의 찬조금으로

- 강제할당, 최저액지정, 전화독촉, 학교발전기금센터(행정실) 또는 학교계좌 입금이 아닌 자생단체통장으로 입금, 자생단체 임원이 직접 걷는 사례, 알림장을 통한 강제징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를 아닌 학교장 또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공동 명의로 가정통신문, 학생별 수납 배부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의해 기금을 교직원의 복지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비공개적으로 교직원 회식비용 등으로 징수하는 회비
- 자생단체 임원이나 학생회장단 학부모들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당선사례금"
- 자생단체의 연간 사업과 예산계획이 의결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회비
- 자생단체 임원들끼리 할당하여 징수하는 특별회비
- 학교 예·결산에 보고되지 않는 외부 업체 등의 후원금

그러므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금'은 사실상 강요당한 기금이며, 당연히 불법찬조금이다.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이라고 학교에서 내기를 권하는 기금도 불법 찬조금이다. 도서비, 청소용품,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은 학교예산으로 편성하여 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굳이 내고 싶다면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내야 한다. 학교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조성계획이 논의 되어야 하며 조성목적과 방법, 액수까지도 정하게 되어있다. 말하자면 필요에 의하여 갑자기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발전기금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권유하여서도 안 되며 최저액을 정해서도 안 되는 등 절차와 과정을 매우

까다롭게 정하여 함부로 조성하지 못 하도록 하였다.

참교육 학부모회에서는 2005년부터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상담 및 집단 제소 등 불법찬조금 근절을 중요한 사업으로 잡고 진행하고 있다. 불법찬조금 요구를 당당하게 거절하고,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에 신고합시다.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참교육학부모회의 이름으로 각 교육청에 제소하여, 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가 아토피가 심합니다. 아이들의 급식이 걱정됩니다.

▷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급식 소위원회구성과 검수단 참여’이다.

한창 커야할 나이의 우리 아이들이 매일 먹는 밥상,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서의 귀한 ‘급식’.그러나 구제역, 조류독감, 식중독 파동, 외국 소고기 등으로 우리 아이들 밥상이 위험에 처해있다.

1. 나라에서 학부모에게 준 권력, '학교 급식 소위원회' .

당신이 학교운영위원이라면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여기서는 학교 급식 검수, 급식 업체 선정, 급식 환경 등 급식에 관한 모든 것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소위원회가 활성화된 학교에서는 급식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친환경’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학년 대표나 학교운영위에서 추천받은 일반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미 구성된 학교도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학부모’들의 입김이 센 소위원회 구성을 꺼리기 때문에 구성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

2.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음식, 부모 눈으로 확인 - 검수단에 참여하기

소위원회가 있는 학교는 총회에서 ‘급식 검수단’을 선출한다. 그렇지 않은 학교는 대부분 ‘검수단’을 임의로 (원래는 공개적으로 꾸려야 함) 꾸려서 형식적 검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적극적으로 검수단에 참여하여 제대로 검수를 해보자.

3. 학교 급식 검수단 활동, 어떻게 하나?

검수에는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검수, 검식, 급식소 위생 점검 등이 있다. 식재료 검수는 학교의 주문에 따라 납품업체가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품질, 신선도, 수량, 위생상태 등이 학교의 요구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납품 전에 업체에 납품재료의 규격과 기준, 양에 대해 충분히 협의 하였어도 실제 납품에서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과 급식비를 납부하는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적절한 조리방법, 위생관리 점검은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참교육 학부모회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폴뿌리국민연대’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참교육학부모에서는 검수단 교육 및 교육집을 발행하고 있다.

★ 각 구청에서 의무(무상)급식을 부분적이거나 실시하고 있다. 의무(무상)급식으로 직영 급식, 급식의 질 보장 등 급식의 심각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부모의 참여가 무상급식을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한다.

▶ 회장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학교에 간식 넣어주자는데, 간식이 꼭 필요하나요?

▷ 3월이 시작되니, 아이들이 심심찮게 학교에서 간식이 돌려진다. 회장, 부회장이 돌렸거나, 어머니회에서 돌리는 것들이다. 어쩌다 한 번, 아이들이 해달라니까 등의 이유로 돌리게 되지만, 받는 입장에서 보면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간식이 나오게 된다.

간식이 돌려진 날, 급식 당번으로 참여했던 학부모라면, 아이들이 고스란히 남긴 반찬을 버리면서 ‘이건 아닌데..’ 하고 문제의식을 느껴본 적이 있다. 아이들에게, 교사에게 간식은 교육활동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간식이 위생적이나 영양학적으로 부적절한 음식일 경우가 많다.

간식이란 것도,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또는 경제적 이유로, 천 원짜리 햄버거나 값싼 닭고기, 피자 등의 패스트푸드 일색이다. 패스트푸드의 위해성은 제쳐두고라도, 원료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값싼 음식이라는 점에서,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것도 반 전체가 먹기에 부적절한 음식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급식은 원자재부터 간간하게 검수하여 엄격한 처리 공정을 거쳐 공급되는데도 한 번씩 식중독 등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는 전체 급식의 엄중함을 생각할 때, 반 전체가 먹는 아이들 음식을 쉽게 넣어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둘째, 가장 많은 간식을 차지하는, ‘회장턱’ 문화인데, ‘회장턱’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어른들에게서 배운 것들이다.

학교는 첫 민주주의의 배움터이며, 회장 선거는 가장 직접적인 민주주의의 학습장이다.

아이들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다. 회장으로 뽑아줘서 ‘한 턱’낸다는 관행은 ‘회장’이라는 자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권력으로 바라보는 잘못 학습된 민주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문화이다. ‘회장’은 권력이 아니라, 반 전체 아이들이 모두 주체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받들고 섬기는 ‘봉사’의 자리이다. 당선된 것에 대한 감사는 ‘당선사례’ 한 마디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아야 할 자리인 것이다.

게다가 회장턱은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는 아이들이므로 결국 ‘부모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회장 선출’등의 아이들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간식 문화’로 부적절하게 부모가 개입하게 되어 비교육적일뿐더러,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위화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회장턱’ 문화는 역으로 회장턱을 돌릴 수 없는 가정의 아이는 회장으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여 비교육적인 면이 있다.

셋째, 급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급식을 통해 먹는 일의 소중함과 먹거리에 대한 경외심, 좋은 식습관 등을 배운다. 지금의 간식문화는 급식을 쉽게 버리는 것을 당연시하고, 패스트 푸드에 집단적으로 친숙하게 만든다.

그런데도, 딱딱한 학교생활의 윤활유(?)로서, 혹은 교사의 생활지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꼭 간식이 유의미하다면, 아이들에게 이로운 간식을 학부모회에서 넣어주는 것은 어떨까? 그 사례 하나는 바로 튀긴 콩이나 구운 열치 등이다.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간식을 거절하고, 이런 간식을 이용하고 있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면서도, 좋은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스승의 날에는 선물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 스승의 날'은 자녀가 교사에게 감사를 전하는 날이다. 부모가 하는 '감사'는 그것이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고 해도 '대가성'에 대한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5월은 학년이 시작된 지 두 달 남짓이 되어, 자녀가 감사를 느끼기 어려운 시기이다. 그래서 참고교육학부모회에서는 자녀가 감사에 대한 학년 말(2월)로 스승의 날을 바꾸자고 방침을 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 교사와 면담을 해야하는데, 부담스럽다.

▷ 교육이 안정된 선진국의 교육풍토에서 면담은 학교의 중요하고도 정례적인 행사로 일년에 두 차례 이상 진행된다. 면담은 교사에게는 학부모와의 토론을 통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면담이 교사나 부모 모두에게 여전히 부담스럽다. 그 이유는 첫째, 교사 뿐 아니라 학교는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보지 않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래서 면담이 공식 일정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면담을 해도 교사의 일방적인 선언이나 학생에 대한 평가만 듣다가 오게 되기 일쑤이다. 둘째, 가정과 학교의 연계에 대한 안이한 인식 때문이다. 아이들은 인생의 어떤 시기보다 빠른 속도로 자라나고 있으며,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주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절실하게 학교와 가정, 사회의 섬세한 손길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현장은 아이들에게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학교 안에서 이미 문화가 된 왕따나 폭력 등의 문제들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예방은 가정과 학교의 공고한 연계가 그 첫 번째이다. 면담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이기도 하며, 교사와의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이기도 하며, 학부모의 자리매김을 위한 학부모 운동이기도 하다.

교사 면담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1. 적극적으로 면담을 요청하고, 한 학기에 한 번은 면담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미리 알림장이나 문자를 통해 면담 일정을 의논한다.

막연히 교사의 퇴근 시간에 맞추어 불쑥 가는 경우가 있는데, 교사는 방과 후에도 회의나 수업 준비 등으로 일정이 빡빡하다.

3. 빈 손이 아름답다.

면담에 빈손으로 가는 것에 전혀 개의치 마시다. 교사가 물이나 차로 접대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교육당국에서 불법 촌지 수수로 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교사가 더 부담스럽다.

4. 토론합시다. ‘자식 보낸 죄인’으로서는 토론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교사의 권위나 전문성에 주눅 드는 것도 토론을 방해한다. 학부모만큼 자녀를 잘 아는 사람은 없으며, 자녀를 전적으로 책임져왔고, 앞으로도 책임질 사람은 없다. 학부모로서의 권위와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토론합시다.

▣초등 1학년 학부모가 알아야 할 사항

1. 입학 전

가. 생활습관

- 자기 물건 스스로 챙기기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 혼자서 세수하고 이 닦고 옷 입기
- 화장실 사용법 기타 지도하기

나. 학용품 준비

- 책가방 : 책, 공책, 필통 등을 넣는 보통 크기. 책상에 걸 수 있는 고리가 있는 것으로 준비.
- 공책 : 담임 선생님 설명 듣고 준비
- 연필 :심이 무른 2B 연필 3자루 정도, 샤프는 금지
- 필통 : 교실 바닥에 떨어져도 소리 나지 않는 천으로 만든 것
- 스케치북 : 8절 스프링
- 크레파스 : 18색, 24색 (36색은 책상에 놓고 쓰기 불편함)
- 색연필 : 12색
- 모든 학용품(필기도구, 필통, 가방, 실내화, 미술도구, 악기, 크레파스 등)에는 필히 이름을 써야 한다.

다. 기타

- 가능하면 끈 없는 신발
- 국어 : 글 읽기(독서지도 열심히 해야), 연필 잡는 법
- 수학 : 1부터 100까지 수 세기

2. 입학 후

가. 입학식

- 진지하고 경건하면서도 기쁜 날로 맞기
- 옷은 따뜻하게, 가방은 가져가지 않기
- 축하 편지, 축하 파티 필요(시작을 대단하게 여기도록 해 주기)

나. 아침 등교 전

- 반드시 대변 누기
- 아침밥 먹기
- 알림장 재확인
- 여유롭게 출발하기 (너무 일찍 가는 것도 곤란, 위험)
- 준비물이 많음(거의 날마다 준비물이 있음. 학부모가 직접 챙겨야 함)

다. 방과후

- 알림장 반드시 확인
- 숙제 먼저하고 놀기

- 준비물은 저녁에 준비
- 가방 챙겨놓기 (처음엔 아이와 함께, 나중엔 혼자서)
- 연필 확인 (미리 깎아 놓기)
- 풀은 딱풀, 가위는 어른용 가위가 좋음. 자는 15cm 준비.

3. 가정에서의 생활지도

가. 공부하는 습관 형성이 제일 중요

- 날마다 일정시간 공부하는 시간 정해놓고 스스로 하기(숙제, 독서, 예습, 복습)
- 알림장에서 숙제 확인하기

나. 기본 생활 습관 익히기

- 인사 하기, 고운 말씨 쓰기, 쓰레기 안 버리기
- 절약하는 습관(색종이, 재활용 종이, 적당한 학용품)
- 식사 예절 (음식 안 남기기, 가리지 않기, 흘리지 않기, 너무 늦게 먹지 않기)

4. 친구 관계

친구와의 사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이 또래 아이들은 다룰 수도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정도로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다. 친구를 전혀 사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을성 있게 스스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부모가 앞장서서 맺어주는 등의 무리한 간섭은 아이를 초등학교 내내 외톨이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명심하자.

5. 상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어 선생님께 상담하고 싶더라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입학 초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파악하기도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에 대해 교육상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알림장을 통해 선생님께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굳이 만나야 할 일이 있다면 사전에 연락하고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6. 학습지와 학원

학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가 학습면에서 월등하기를 바라며, 그렇기 때문에 학습지와 학원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학습지와 학원의 선택은 아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생길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풀지 못한 학습지의 분량이 쌓여 가거나 학원숙제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학부모는 잔소리를 하게 마련이고, 이는 아이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도리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내 아이의 학습태도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습지나 학원을 선택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어야 한다. 학습면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시절 더 중요한 것은 바른 태도나 적절한 운동 능력, 창의력 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새내기 학부모 필독서

1. 양육쇼크/포 브론슨, 애슐리 메리언 지음 | 이주혜 옮김 | 물푸레 펴냄 | 2009-11-23

자녀양육과 아동발달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자녀교육 지침서. 자녀양육에 열심인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왜 점점 더 공격적이고 잔인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일까? 이 책은 오늘날 자녀양육 전략의 상당수가 과학적 연구 성과를 간과하고 있는 실패작임을 과감하게 증명한다. 또한 놀라운 통찰력으로 획기적인 자녀양육법을 제안한다.

2. 공감의 뿌리/ 메리 고든 지음 문희경 옮김 출판사 산티 | 2010.06.01

아이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공감의 힘!

캐나다의 교육자인 저자 메리 고든은 '갓난아기'가 가진 힘을 발견하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아이들에게 1년 동안 갓난아기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는 심리 교육 프로그램 '공감의 뿌리'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아기의 감정을 관찰하면서, 감정을 이해하는 감성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아이들의 공감 능력과 함께 학습 능력도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감의 뿌리』는 오늘날의 과도한 경쟁 교육 속에서 다치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자신과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하는 책이다.

3. EBS 부모 60분 - 발달편, 문제해결편/저자:EBS 60분 부모 제작팀 지음 출판사 지식채널 | 2010.02.03

대한민국 부모를 위한 육아 안내서. 2003년 9월에 시작된 이후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부모들에게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안겨준 EBS 프로그램 「60분 부모」를 책으로 옮긴 것이다. 성장 발달 편은 방송 내용 중에서 좋은 부모 되는 법과 영유아의 전반적인 성장 발달에 대한 <아이 발달, 부모 성장> <쑥쑥! 톡톡! 행복한 육아> 편을 정리해 초보 부모의 육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양육환경, 발달에 대한 이해, 아이의 욕구를 읽는 법, 애착을 형성하는 법, 또래관계 시작하는 법, 건강 체크하는 법 등 행복한 육아를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로 구성했다.

4. 느림보학습법/저자 신의진 지음 출판사 중앙M&B | 2001.06.04

연세대 의대 소아정신과 교수인 저자의 두 번째 조기교육 비판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무수한 시행착오 속에서 얻어낸 것들을 고스란히 적어놓았으며, 아이를 느리게 키우는 구체적인 학습방법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5. 현명한 부모는 아이를 느리게 키운다/저자 신의진 지음 출판사 걷는나무 | 2010.06.15

5살까지는 아이를 마음껏 놀게 하라!

연세대학교 의대 소아정신과 교수 신의진이 공개하는 똑똑하고 행복한 아이 만드는 비결. 저자가 소아정신과 전문의로서 조기교육으로 병든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자녀교육의 핵

심을 담아냈다. 아이를 느리게 키우고 싶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기교육의 바람에 휘말려버린 부모를 위해 저술된 것이다. 현명한 부모는 아이를 느리게 키움을 일깨워주면서, 5살까지는 마음껏 놀게 해도 된다고 말한다. 조기교육의 바람에서 벗어나 아이를 느리게 키우기 위해 필요한 원칙 10가지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아이마다 맞는 학습법이 따로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찾아주고 이끌어주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사례를 풍부하게 실어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6. 학교 겁내지 말자/참교육학부모회 기획. 박이선·황수경 저 도서출판 민들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선생님과 관계 맺기, 아이의 학교생활, 왕따 등 학교 폭력 문제, 존치문제, 학부모의 학교 활동 문제 등 학부모들의 주된 고민을 짚어주며, 학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7. 나부터 교육혁명/ 저자 [강수돌](#) 지음 출판 [그린비](#) 펴냄

성적이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아이는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교육. 이런 각박한 우리의 교육 현실을 비판하며 참교육을 외친다. 그러나 막상 내 아이의 일이라면... 이 책은 참교육을 위해서는 학생인 나부터, 교사인 나부터, 학부모인 나부터 변해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 교육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행할 수 있는 '민간요법'적 대안 모색을 통해 하나씩 우리 교육의 변화를 모색한다.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예비학부모교실 교안 연구팀

팀장 : 유지숙 (서울지부 정책실장)

교사: 정현주 (서울 당촌초등학교 교사)/ 최선정 (인천 일신초등학교 교사)

전문가 : 김계순(유치원연합회 서부지역 분회장, 현대홍제유치원원장)

학부모 : 박이선 (학교 겁내지말자" 저자, 참교육학부모회 전 수석부회장)

김해수(개포고등학교 학부모, 전 대치중학교 운영위원)

전은자(서울지부장)

▣ **뜻대 있는 학부모되기 12계명**

1. 성적보다는 자녀의 인성과 소질, 소망을 더 존중한다.
2.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가꾸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3. 땀흘려 일하는 노동의 귀함을 깨닫도록 자녀에게 모범을 보인다.
4. 더불어 사는 지혜와 사랑을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도록 한다.
5. 내 아이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한 평등 교육을 지향한다.
6. 좋은 학교, 즐거운 교실을 만들어주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한다.
7. 학교발전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학교자원봉사에 앞장선다.
8.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교육권을 바르게 행사한다.
9. 학력과 학벌보다는 사람됨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
10. 성과 지역, 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해 실천한다.
11. 분단의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장선다.
12.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해 모든 부문의 사회개혁에 참여한다.

학부모 현장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이다.

지금보다 더욱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성과 소질, 자율성을 존중받으며 살아야 할 아이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사람을 길러내고
이러한 시대 변화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소홀히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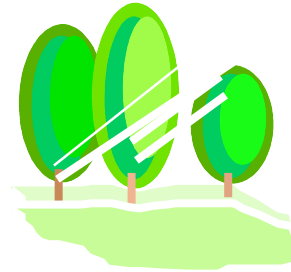
지난 수 십 년간 우리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온 입시위주 교육과 학력위주풍토서
우리 아이들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창의성과 자율성,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키워오지
못하고, 저마다 지닌 아름다운 개성과 꿈, 삶의 목표를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입시경쟁교육에 시들어 가는 아이들에게 더욱 더 공부만을 강요했을 뿐,
즐겁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고, 올바른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채 우리 교육의 파행성을 더욱 부추겨 왔다.

이제 우리 학부모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꿈과 웃음을 되찾아 주고,
밝은 미래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학부모가 나서야 한다.
내 자녀를 개성과 창의성 있는 아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슬기로운 부모가 되어야 하며, 학교를 즐거운 배움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개혁을 요구하고 참여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모든 아이들이 올곧게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자각하며, 우리 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다음 사향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다짐



우리는 학교에서

- ◆ 성적보다는 자녀의 인성과 소질, 소망을 더 존중한다.
- ◆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가꾸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 ◆ 땀흘려 일하는 노동의 귀함을 깨닫도록 자녀에게 모범을 보인다.
- ◆ 더불어 사는 지혜와 사랑을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도록 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 ◆ 내 아이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한 평등 교육을 지향한다.
- ◆ 좋은 학교, 즐거운 교실을 만들어주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한다.
- ◆ 학교발전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학교자원봉사에 앞장선다.
- ◆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교육권을 바르게 행사한다.

우리는 사회에서

- ◆ 학력과 학벌보다는 사람됨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
- ◆ 성과 지역, 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해 실천한다.
- ◆ 분단의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장선다.
- ◆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해 모든 부문의 사회개혁에 참여한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육의 한 주체로 바로 서고자 하는 전국의 학부모들이 모여 만든 교육시민단체입니다. 1989년 창립하여 우리 아이들이 소질과 개성을 살리면서 밝고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는 참교육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20년동안 한결같이 노력해 왔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요~

☞ 학부모 눈으로 보는 교육정책 활동

- 교육당국에 의견서, 성명서 발표, 서명·청원 운동
-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의견수렴, 여론조성
- 국회·시·도교육위원회 참관

☞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만들기

-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강좌, 상담,교육자치활동 지원
- 학교내 돈봉투, 부당찬조금 없애기 운동
- 학교운영위원회 실태조사, 제도개선 활동

☞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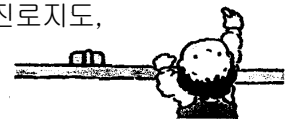
- 지회별 월례교육강좌 및 초중등 학부모교실
- 교육현실의 이해를 위한 학부모교육 강좌
- 소모임-글쓰기,동화읽기,미술,역사,풍물,영어,봉사
- 부모역할 훈련
- 어린이사업-기행,어린이날,체험학습,자원봉사활동.
- 청소년사업-인권, 학생회법제화 지원.문화동아리.

☞ 출판·홍보활동

- 방송프로그램 모니터 활동
- 학부모미디어교육
- 선거보도 감시 모니터 활동, 연대활동
- 매월 '학부모신문' 및 소식지 발간

학·부·모·상·담·실

- ▶ 전화,방문,사이버를 통한 학부모,학생 상담
- ▶ 민원소송 및 법률대응 활동
- ▶ 내용:불법찬조금,촌지문제,자녀인성지도,자녀학습,진로지도, 교사체벌,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학생인권...



대표전화:02)393-8900

학부모상담실: 02-393-8980 팩스:02)393-9110

홈페이지:<http://www.hakbumo.or.kr> 한글주소: 참교육학부모회

E-mail hakbumo@chol.com

주 소 서울 종로구 교남동 73번지 2층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